

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programs like 20 관찰카메라(24시간(재)), 30 채널A아침뉴스, 10 레도난마, etc.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programs like 06:00 건강함 아침, 06:30 한국기행(무안반도), 06:30 도전! 직업체험, etc.

“아이들에게 존중하는 법 가르쳐야죠”

최수중·하희라 부부 KBS ‘위기의 아이들’ 진행

“저는 중학교 2, 1학년인 우리 아이들에게 ‘최민서 씨’ ‘최운서 씨’라고 부릅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썼어요.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됩니다.”

배우 최수중은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KBS 1TV 청소년 기획 ‘위기의 아이들’ 촬영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수중·하희라 부부는 KBS 1TV가 우리 사회 청소년 문제의 실태와 해법을 조명하기 위해 10부작으로 기획한 ‘위기의 아이들’ 시리즈의 진행자 역할을 맡았다.

최수중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동기로 “오래전부터 여러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정에서 혼자 남아 동떨어져 있거나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바른길로 안내하는 인도자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나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청소년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점으로 “모든 청소년 문제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중심축이 가정이다. 가정이 몰락하고 잘못되면 아이들이 빠져나가게 된다. 지역사회나 큰 사회나 나라 전체까지 통솔하는 시발점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사랑과 존중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제가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하는 걸 보고 주변에선 뭘 그렇게 특이하게 하냐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희라 씨가 총 5번 유산했었어요. 세 번 유산하고 두 아이를 낳고 다시 두 번 유산했는데, 처음 신혼여행을 가서 생긴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까지



최수중

하희라

이렇게 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한테 좀 더 애듯하고 자식의 귀함을 알려줘요. 내가 살아 온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를 그대로 성장시키는 안내자이자 인도자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부모로서 ‘공부해’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런 적이 한번도 없어요. 뭘든지 다 아이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그게 운동이든, 미술이든 잘한다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줘야 하는데, ‘공부는 못 하는 게 그림만 잘 그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문제라고 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교육에서 모든 사람의 철학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진 가정의 아이들은 사회가 보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있는데, 너무 쉽게 놔두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시설이 있어도 인원이나 여

건이 부족해요.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는 아내 하희라의 제안으로 이번 방송 출연료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희라 씨가 먼저 얘기한 부분인데, ‘좋은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나서서 합시다’라고 했어요. 이전에도 ‘아름다운 사람들’ 방송을 하면서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래비를 받기가 부끄럽습니다. 기부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화상 환우들에게 기부했는데, 그 금액이 1억 원이었어요. 이번에도 하희라 씨가 ‘우리가 기부할 곳을 찾아 기부하자’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기부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필리핀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데 기부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위기의 아이들’은 오는 17일 9시 40분에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설국열차’ 1위 ... 644만 관객 넘어 쾌속 질주

주말 박스오피스 ... 방학 맞아 ‘에픽’ 등 애니메이션도 강세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사진)가 2주째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흥행 질주를 하고 있다.

1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설국열차’는 지난 9~11일 전국 1066개 상영관에서 159만 9778명(매출액 점유율 44.3%)을 모아 다른 영화들을 압도했다. 지난달 31일 개봉 이후 12일간 누적관객수는 644만5400명이다.

이어 하정우 주연의 ‘더 테러 라이브’가 전국 809개 관에서 107만1천493명(29.5%)을 모아 ‘설국열차’의 뒤를 따랐다. 개봉 이래 12일간 누적관객수는 383만1554명으로 4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름방학 기간이어서 애니메이션도 강세를 보였다.

지난 7일 개봉한 ‘에픽 : 숲속의 전설’이 471개 관에서 29만2440명(7.8%)을 모아 3위, 같은 날 개봉한 ‘명탐정 코난 : 수평선상의 음모’가 301개 관에서 14만5723명(3.5%)을 모아 4위에 올랐다.

할리우드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터보’는 333개 관에서 13만7470명(3.4%)을 모아 5위로 떨어졌다. 누적관객수는 169만2614명이다.

오는 14일 개봉 예정인 장혁·수애 주연의 ‘감기’는 전국 325개 관에서 연 유통시차에서 12만6281명(3.5%)을 모아 6위로 뛰어 올랐다.

이밖에 ‘개구쟁이 스포츠’(12만6073명, 3.1%), ‘레드 : 더 레전드’(8만4280명, 2.3%), ‘감시자들’(1만6164명, 0.4%), ‘더 울



버린’(1만4567명, 0.5%)이 10위 안에 들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3일(음 7월 7일辛亥). 36년생 서두르면 실수가 연발하리라. 48년생 호조건의 성립이 성장에 배가 시킨다. 60년생 원인을 분명히 따져봐야 바로 잡을 수 있다. 72년생 목적이 부합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자. 84년생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1, 96

TV 하이라이트. ‘고려독립청년당’ 생생한 증언. 베이비부머의 행복 찾기. 백발 부부의 러브 스토리. 광복절 기획 시사기획 창 ‘적도에 묻힌 이... 고려독립청년당’(KBS 1TV·밤 10시) = 일제 식민치하, ‘포로감시원’이라는 이름으로 적도로 내몰린 조선인 청년들이 있다. 이들의 임무는 인도네시아 자바의 연합군 포로들을 일선에서 관리하는 일. 낯선 땅, 일본의 멸시 속에서도 26명의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은 비밀항일결사체 ‘고려독립청년당’을 결성했다.